

“타이어도 이제는 안전제일이다”

안전관련 특허 출원건수 53% 차지 ... 성능개선 출원도 증가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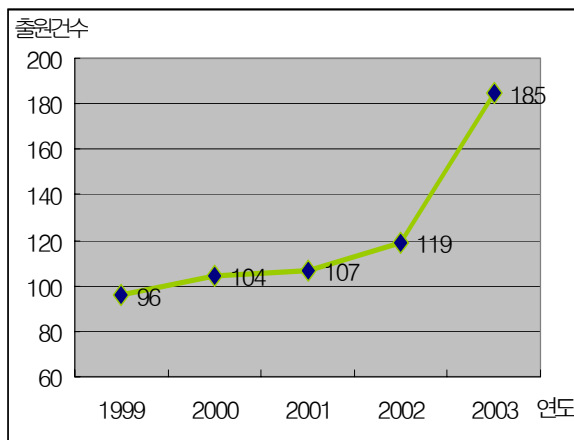
안전한 자동차에 대한 높은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안전주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타이어 관련특허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

특허청(청장 하동만)에 따르면, 2003년 타이어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특허 269개, 실용신안 81개로 총 350건이었으며, 이중 내국인 출원건수는 297건, 외국인은 출원건수 53건으로 내국인 출원건수가 15% 증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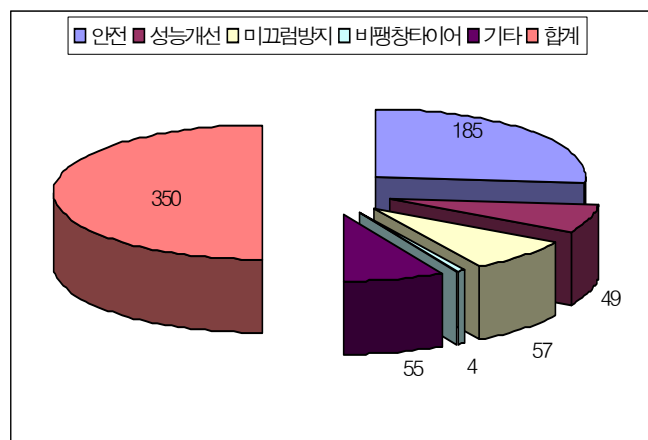
한국은 지형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외국에 비해 계획적인 도로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위험이 많아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보다는 안전함과 주행성 등 성능에 대한 소비자 요구 높아지고 있다.

타이어의 안전과 관련된 출원은 총 185건으로 2001년 107건에 비해 78건 증가한 가운데 타이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타이어 감시 시스템 TMS(Tire Monitoring System)에 관한 특허가 1999년 27건에서 2003년 78건으로 증가했고, 타이어의 골격 및 구조보강을 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, 타이어 파손후에도 일정거리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(Run Flat)타이어에 관한 특허가 27건으로 200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타이어 안전에 관한 특허 출원추이



타이어 안전에 관한 특허 출원비중



자료) 특허청

또 안전 관련특허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주행 및 파손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. 특히, 타이어 표면의 요철 형상(Tread Pattern) 또는 재질에 관한 출원건수가 평균 35% 증가했다. <한유진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18>